

Duabi유, 다시 45달러선 돌파

5월24일 45.24달러로 0.34달러 상승 ... WTI는 49달러 넘어

5월24일 국제유가는 미국 ExxonMobil의 정제시설 가동차질 소식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NYMEX의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선물유가는 전일대비 배럴당 0.51달러 상승한 49.67달러, IPE의 Brent 선물유가는 0.45달러 오른 48.82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Dubai 현물유가도 전일 매도청산을 위한 매수세(Short-Cover) 유입 영향으로 0.34달러 상승한 45.24달러를 형성했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5/19	5/20	5/23	5/24
현 물	Dubai	44.24	44.90	-	45.24
	Brent	45.16	45.48	45.65	45.95
	WTI	47.03	48.24	47.92	49.33
	Oman	45.33	45.87	-	46.21
	Tapis	48.60	48.75	-	48.92
NYMEX 선물(WTI)	7월	48.74	48.65	49.16	49.67
	8월	49.65	49.70	50.05	50.47
환율(원/달러)		1013.70	1014.10	1014.10	1010.4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한편, 미국 엑손모빌이 운영중인 텍사스주 Baytown 소재 정제시설(55만7000b/d)에서 경미한 가동차질 소식이 전해졌으나, 엑손모빌은 가동 차질규모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25>